

노시환에 통 큰 베풀... 한화 "남는 장사"

11년 307억 계약 막전막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간판타자 노시환(25)에게 안긴 '11년 총액 307억 원'이라는 역대급 다년 계약의 이면에는 구단의 치밀한 계산과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손혁 한화 단장은 23일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의 가데나 구장에서 노시환의 계약이 발표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 프로 야구 역사를 바꾼 계약이 성사된 막전 막후를 공개했다.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예비 자유계약선수(FA) 프리미엄에 대한 대비'다.

노시환이 올 시즌을 무사히 마치면 데뷔 첫 FA 자격을 얻는다.

손 단장은 "매년 셀러리캡(팀 연봉 총액 상한제)과 물가가 올라간다고 치면 11년으로 나눠서 계산해 볼 때 구단 입장에서도 괜찮은 조건"이라며 "만약 올해 시환이가

셀러리캡·물가 오름세 감안 땀 장기 분할 손해 보지 않는 조건 몸값 더 뛰기 전 선수치기 포석 치밀한 계산에 구단 전폭 지원

FA를 앞두고 40홈런을 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잡는다는 보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치가 폭등하기 전에 확실하게 묶어두는 선제 조치였던 셈이다.

노시환 계약의 연평균 금액은 약 28억 원 수준이며, 이를 4년으로 환산하면 112억 원이다.

KBO리그 최장인 '11년'이라는 기간은 구단과 선수의 교감 속에서 탄생했다.

손 단장은 "조율을 거치다가 '우리 상징성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뜻을 모았다"며 "노시환은 장종훈, 김태균처럼

올 시즌 뒤 빅리그 계약 땀 허사 미국 갔다 돌아와도 활약 기대 "여기 남아 홈런 30개씩 쳐주길" 손혁 단장, 간절한 마음 내비쳐

한화의 레전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선수 본인도 한화에서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기에 상징적으로 11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자리에서 확실한 선수를 키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저런 선수를 다른 팀에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선수를 다시 키워내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며 대체 불가 자원을 강조했다.

계약 후반기 활약에 대한 구단의 믿음은 확고하다.

손 단장은 "11년 뒤 계약이 끝나도 노시환은 36세다. 최형우(삼성 라이온즈) 같은

선수가 불혹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약하는 걸 생각하면, 노시환 역시 계약 후반기에도 야구를 잘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 였다.

이번 계약은 한화 그룹의 든든한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손 단장은 "구단 사장님이 그룹에 보고를 잘해주셨다. 그룹 입장에서든 엄청난 게 큰돈이지만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며 "그룹에서는 '대신 팬들에게 열정을 보여 달라고' 당부하셨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김승연 회장님과 그룹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시환은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메이저 리그 진출 가능성도 열어뒀다.

노시환의 이번 계약은 2027년부터 시작 하며, 올 시즌이 끝나고 빅리그 구단과 계약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손 단장은 "노시환 정도의 실력이라면 더 큰 무대에 도전해 보고 싶은 것 같다. 해외에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젊은 나



이"라고 선수의 꿈을 응원했다. 단장으로서의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손 단장은 웃으며 "물론 구단 입장에서 시환이가 여러 기 계속 남아서 11년 동안 매년 30개씩 홈런을 쳐주면 제일 좋겠다"고 밝혔다. 글:사잔-연합뉴스

23일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의 가데나 구장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한민국 야구대표팀과 한화의 연습경기에서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이 경기 후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여자배구 실바, 3년 연속 1000득점 '눈 앞'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의 특급 외국인 공격수

지젤 실바(35·등록명 실바·사진)가 2025-2026시즌에 득점 부문에서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뒀다.

실바는 여자부 5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던 20일 한국도로공사와 원정경기에서 39점을 사냥하면서 올 시즌 950득점으로 사실상 3년 연속 득점왕을 예약한 상황이다.

득점 부문 2위인 한국도로공사의 레티치아 모마 바스코(등록명 모마)의 825득점에 무려 125점이 앞서 있다.

실바는 올 시즌 30경기에 모두 출장해 950점을 뽑으면서 경기당 평균 31.7점의 놀라운 공격력을 뽐냈다.

남은 정규리그 6경기를 부상 없이 지금 페이스로 치른다면 산술적으로 1140점을 뽑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남녀부를 통틀어 2005년 V리그 출범 후 처음으로 3년 연속 1000득점 달성 기대감을 키우는 이유다. 2년 연속 1000득점은 실바와 남자부의 레오나르도 레이버 마르

대기록 달성까지 '-50' 남아 950득점, 한 시즌 최고 기록 다음달 2일 정관장전 겨냥

티네스(현대캐피탈·등록명 레오), 노우모리 케이타(전 KB손해보험·등록명 케이타)가 세운 적이 있다.

레오는 삼성화재 소속이던 2013-2014시즌(1084득점)과 2014-2015시즌(1282득점) 때 V리그 역대 첫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이어 케이타가 2020-2021시즌(1147득점)과 2021-2022시즌(1285득점)에 두 번째로 작성했다.

실바는 2023-2024시즌 1005득점에 이어 2024-2025시즌 1008득점으로 남녀부를 통틀어 역대 세 번째로 2년 연속 1000득점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에도 1000득점을 돌파하면 전인미답의 3년 연속 1000득점 대기록을 달성한다.

실바는 다음 달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정관장과 홈경기 때 새로운 이

정표를 세울 가능성이 크다. 1000득점 달성에 50점을 남겨놓은 가운데 실바는 작년 11월 11일 현대건설전에서 이번 시즌 한 경기 개인 최고 기록인 49점을 쏟아냈다.

실바는 26일 흥국생명과의 인제 원정경기로 6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 뒤 3월2일 정관장과 홈경기에 나선다.

실바는 또 여자부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에도 도전한다.

2011-2012시즌 KGC인삼공사 소속이던 몬타뇨(마렐레인 몬타뇨 카이세도)는 1076득점으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작성했다.

또 같은 팀의 조이스(조이스 고메스 다 시우바)와 엘리자벳(엘리자벳 이네 바르가)이 2013-2014시즌, 2022-2023시즌 각각 1009득점, 1015득점을 기록했다.

실바가 남은 6경기에서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면 산술적으로 1140점을 뽑을 수 있는 만큼 조이스와 엘리자벳, 몬타뇨를 차례로 넘어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정후·김혜성, MLB서 나란히 안타 1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범경기에서 나란히 안타 1개를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6-2로 이겼다.

4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는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도 3타수 1안타를 친 이정후는 시범경기 타율 0.333(6타수 2안타)을 기록했다.

2회 첫 타석에서는 내야 땅볼로 잡힌 이정후는 4회 선두 타자로 나와 상대 세 번째 투수 타일러 피거슨의 4구째 체인지업을 밀어 좌전 안타를 쳤다.

이후 후속 타자의 몸에 맞는 공과 내야 땅볼로 3루에 진루한 이정후는 드루 길버트의 안타로 2-2 동점을 만든 득점을 올렸다.

6회 외야 뜬공으로 잡힌 이정후는 7회 수비부터 교체됐다.

전날 경기에서도 파울 플레이를 잡은 뒤 홈으로 쇄도하던 주자를 잡아낸 이정후는 이날도 3회 1사 1, 2루에서 대럴 에르나이스의 타구를 잡아 홈으로 파고들던 2루 주자 맥스 먼시를 홈에서 아웃시켰다.

김혜성은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에서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성적을 냈다.

1회 삼진으로 돌아선 김혜성은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내야 안타로 출루했고, 이후 5회 내야 땅볼, 6회 삼진을 기록했다.

김혜성의 시범경기 타율은 0.429(7타수 3안타)다.

뉴욕 메츠 배지환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경기에서 9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2타수 무안타에 삼진 2개로 물러났다.

경기 결과는 각각 다저스의 3-0 승리, 메츠의 4-3 승리다.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화제의 신간

58세 신예 작가리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